

주일에배

오전10:00

사회: 이상부장로

(*) 표시는 일어섭니다.

찬 양	한중사랑교회 찬양팀 / 다같이
*목상기도	사회자
*사도신경	다같이
찬 양	찬송가 64장 / 다같이
대표기도	김수화 집사
성경봉독	히브리서 11장 6~7절 / 사회자
설 교	"큰 기쁨" / 서영희 목사
찬 양	찬송가 545장 / 다같이
함성기도	다같이
특 송	특별팀(예수님이 말씀하시니)
헌 금	찬송가 50장 / 다같이
헌금기도	서영희 목사
*찬 양	부흥(이 땅의 황무함을) / 다같이
*축 도	서영희 목사
성도의 교제	새가족반 수료식 / 통지 / 새신자 환영

봉사안내

	6월 3일	6월 10일	6월 17일	6월 24일
봉사	1대6지역	1대7지역	1대8지역	1대9지역
특송	특별팀	1대4지역	1대5지역	1대6지역
사회	이상부장로	김학수목사	김 성 목사	조황주목사
기도	김수화집사	조영환집사	오순희집사	윤용수집사

수요일배, 토요일배

수요일배	찬양: 김 성 설교: 김학수<본문 엡2:12~13>
토요일배	찬양: 조황주 반별성경학습
백두산모임	매주수요일 오전10시 인도: 김 성 목사
주바라기모임	매주목요일 오전10시 인도: 김학수 목사

임송

(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)

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
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
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

알림

◎ 하나님에 받으시는 예물

※ 무명을 제외한 주일, 감사, 십일조, 절기, 기타헌금의 명단이 후보에 기재됩니다.

■ 십일조: 고인복, 권용(배혜숙), 김성(김희), 김승옥, 김영숙¹⁴, 김일숙, 김채숙², 김춘매¹, 김학수, 김홍¹, 남림, 남승명(배태숙), 남홍자(달원), 도정분, 박명숙⁸, 박문실, 박세연, 박화실¹, 방영복, 변혜영, 석중녀, 성순임, 양기화, 오경희, 유월선, 윤태성, 이상부, 이순옥³, 이순희¹, 이영옥², 이영화⁶, 이옥교, 임경애, 임창옥, 전동만, 정금선², 정미란², 조황주, 채규범(박성업), 채영금, 최성호², 최차남, 무명³

■ 감사헌금: 강경실, 강영자³, 강중술, 권용(배혜숙), 권태영², 김경희, 김기택, 김성도², 김연화³, 김영숙¹⁴, 김영옥⁸, 김영희⁸, 김옥분⁸, 김옥선⁸, 김용덕², 김의철, 김중식, 김창길, 김춘란², 김춘매¹, 김중정, 김혜성, 남림, 남영현, 남옥자⁴, 남홍자(달원), 류창해, 박문실, 박복희², 박분남, 박성호², 박세연, 박영수², 박영순¹, 박일천, 박정혜, 방준자, 서영희목사, 선우옥순, 성순임, 손명도, 송옥순, 신규일, 신명순, 신성진, 양기화, 양홍길, 염상무, 원금순, 원동일, 유석기, 유석립, 윤기현, 윤태성, 이광옥, 이상부, 이순자², 이순자²², 이순희¹, 이영순², 이영애⁶, 이정자¹, 이종필, 이춘란², 임남순, 장영순³, 장혜자, 전덕생, 정금선¹, 정복순², 정옥순⁴, 정위평, 정죽순, 조영애¹, 조정숙¹, 주미란(태형), 차춘복, 채규범(박성업), 채영금, 채영주, 최광춘¹, 최금자², 최림순, 최명옥¹, 최성호², 최순덕², 최옥금, 한순금¹, 한춘화¹, 허옥진, 황금선¹, 황보국, 황옥화, 무명²

■ 건축헌금: 김춘매¹, 박영교, 이정진(정연옥), 조영애¹, 채규범(박성업), 채영금, 한보옥

■ 구제헌금: 박문실

■ 선교헌금: 강은혜

■ 후원(일반): 김수화, 이옥교

■ 후원(약값): 박문실, 박영수², 유용녀(정용식), 최춘자, 황미옥

◎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(간증) "잊을 수 없는 그 날" -정향련-

오늘은 한중사랑교회 가을축제 위해 몇 개 지역으로 나눠 전단지 뿌리러 출동했습니다. 저를 비롯한 4명의 집사님은 장로님 차타고 따따~뽕뽕~ 구로시장으로 달렸어요. 목적지에 도착한 저희들은 제각기 흩어져 전단지를 뿌리기 시작했어요. "안녕하세요! 한중사랑교회 가을축제 놀러 오세요. 감사합니다." 또 특별히 관심 가지는 분들에게 더 상세한 설명을 해 주면서 조금도 쑥스러워 하지 않고 친절하게 전단지를 나눠 주었어요. 어머, 웬 일이에요? 제가 너무 예뻐서인지~^^ 제 전단지를 잘 받아줘서 금방 축이 나서 다른 집사님한테 더 받아서 또 나누어 주었어요.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돌아오는 저의 마음이 기쁘고 발걸음도 한걸 더 가벼워진 온 세상을 얻은 듯 한 기분이었어요. 꽤나 오랫동안 열심히 나눠줬는지 배가 출출한 쌤인데 사랑이 많으신 올 장로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읽은 듯이 저희들에게 햄오뎡을 사주셨어요. 비록 별건 아니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. 시장에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좀 쑥스러웠는데...., 우리 장로님은 양복에 넥타이 메고 햄오뎡 드시며 위풍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웃음보를 터뜨리고 말았어요. 우리 장로님은 품 안 잡아도 너무 멋진 말이지요. 외모도 멋있지만 마음이 더욱 멋있어요. 보통 조그마한 직위만 있어도 마음이 높아져서 상대방을 대하는 차별이 있게 되잖아요. 하지만 올 장로님은 항상 성도 어느 한분이라도 마음 상할까 봐 차별 없이 배려해 주시면서 항상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그 마음.....,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. 교회와 동포들을 위해 마음을 다해 봉사하시는 모습, 매년 축제 때면 친히 식당과 거리를 다니며 전도하시는 그 마음(교황을 떠나 타국에서 사는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한 영혼이라도 속히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) 주님께서 우리 동포들에게 이렇게 훌륭하고 맛있는 장로님을 담임목사님의 든든한 뒷받침으로 세워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정말 행복해요~ 저는 그 후로 가끔 구로시장에 들리면 그 맛있게 먹었던 햄오뎡이 생각나서 특별히 그 집에 가서 사 먹지만 그 날의 그 맛을 찾을 수가 없어요. 아마 장로님이 사준 그 햄오뎡은 내 평생에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 같아요. 이날을 생각할 때마다 저도 남은 인생 장로님처럼 맛있게 살아야겠다는 도전이 생기네요. 아자 아자 파이팅!!

줄석연왕

지역	교구	20일	27일	지역	교구
1-01	101 6 6 102 10 12			2-07	207 4 9 208 11 9
1-02	103 6 8 104 5 4			2-08	209 8 6 210 5 7
1-03	105 4 2 106 5 4 107 10 8 108 7 5 109 8 5			2-09	211 6 9 212 6 3 213 1 3
1-04	110 6 6 111 4 4			2-10	
1-05	112 15 14 113 4 5 114 5 12			2-11	
1-06	115 5 4 116 2 4 117 2 3 118 6 5			2-12	
1-07	119 6 6 120 7 5			2-13	
1-08	121 10 9 122 8 8 123 6 3 124 4 4 125 7 9			2-14	
1-09	126 6 5 127 8 6 128 6 7 129 4 4			2-15	
1-10	130 6 4 131 7 8 132 6 8			2대 주	
1-11	133 5 6 134 8 6			3-01	
1-12	135 6 5 136 5 8			3-02	
1-13	137 10 11 138 7 5			3-03	
1대 소계	242 238			3-04	
2-01	201 11 9 202 10 7			3-05	
2-02	203 6 7 204 8 12			3-06	
2-03	205 8 6 206 14 9			3-07	
2-04	207 4 9 208 11 9			4-01	
2-05	209 8 6 210 5 7 211 6 9			4-02	
2-06	212 6 3 213 1 3			총계	